2025년 제1차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 프랜차이즈 상생 · 키오스크 활용 개선 등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전 여의도 중앙회 상생룸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는 중소상공인 유통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한 기구로,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연임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방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 방안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애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섬유산업위원회(위원장 김권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소 방안 등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내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플랫폼 입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를 지적, 자율 규제를 넘어서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면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관행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유통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생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관계 설정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2025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섬유산업위원회(위원장 김권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015년도부터 구성되어 업계 현안을 대변해왔으며, 이번 위원회 위원장은 김권기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맡았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는 이영우 KOTITI 시험연구원, 김종범 수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 6명이 위촉되어 함께 업계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형우 관세사의 '섬유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수출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계 현안 공유 및 애로 발굴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권기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한 정치 상황,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전기료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등으로 섬유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달 시장 및 국방섬유 국산화, △섬유 수출기업 및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를 독려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들의 공통애로 해결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

중기부, 2025년 공동효과형 R&D 신규과제 모집 공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공동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2025년 공동효과형 R&D' 신규과제를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동효과형R&D는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세부과제당 최대 6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2년간)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 지원규모는 총 7~8개 프로젝트(25개 세부과제)다.

각 프로젝트는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당 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경우 최대 2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본 사업의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원 목표인 7~8개 프로젝트 대비 10배를 웃도는 82개의 RFP(제안요청서)가 접수되어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모는 수요조사 결과에서 발굴된 총 17개의 RFP를 기반으로,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과제로는 AI 기반의 정수·하수 처리 모니터링 기술, 미세먼지 저감 기술과 섬유·염색, 철강 분야에서 제조업과 AI·플랫폼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공모 접수는 6월 16일(월)부터 6월 30일(월)까지이며, 기술성, 사업성, 기술보유 역량, 컨소시엄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과제를 선별할 예정이다.

특히, 컨소시엄 타당성은 참여 기업 간의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는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 총괄기관 및 컨소시엄 매니저를 지정하고, 성과공유회 등 정기 네트워킹 운영을 통해 참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또는 협동조합)은 6월 3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법인고객 대상 예·적금 계좌개설 비대면 오픈

법인고객 대상 'JB 법인 주거래 예·적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법인고객 대상 금융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예·적금 계좌개설에 대한 비대면 채널을 오픈하며 JB법인 주거래 예금 및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점 방문을 통해 예·적금 상품을 가입해야 했던 법인고객도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먼저 'JB법인 주거래 예금'의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가입 금액 1백만원 이상 50억원 이내로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 금리는 연 2.00%~2.15%로 최고 연 2.5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과거 6개월간 정기예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10%, JB기업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충족 시 0.10%, 4대 보험료 자동이체 조건 충족 시 0.20% 등 최고 연 0.40%를 제공한다.

'JB법인 주거래 적금'은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가입 금액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로 기본 금리는 연 2.15%~2.60%에 최고 연 3.0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과거 6개월간 적립성 상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10%, JB기업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충족 시 0.10%, 4대 보험료 자동이체 조건 충족 시 0.20% 등 최고 연 0.40%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마련을 통해 법인고객의 금융업무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 K-에듀 기업 메타비티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생활, 금융 플랫폼 구축

전북은행, 메타비티와 외국인 고객 특화 금융서비스 제공 협약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 K-에듀 기업 메타비티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생활·금융 플랫폼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양사는 공동 마케팅과 외국인 고객의 금융 수요 및 이용 행태에 대한 분석, 특화 상품 개발 등 실질적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포용적 금융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설 방침이다.

메타비티 변원섭 대표이사는 "당사의 동남아 현지 기반 네트워크가 전북은행의 포용적 금융 전략과 만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의 협력이 외국인 고객의 실생활에 밀착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외국인전략본부 정상훈 부행장은 "Bravo Korea 브랜드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입국부터 귀국까지 전 생애주기 파이프라인을 구축중"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세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고객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원 공고

전북TP, 공동연구장비 활용 · 컨설팅 지원 모집…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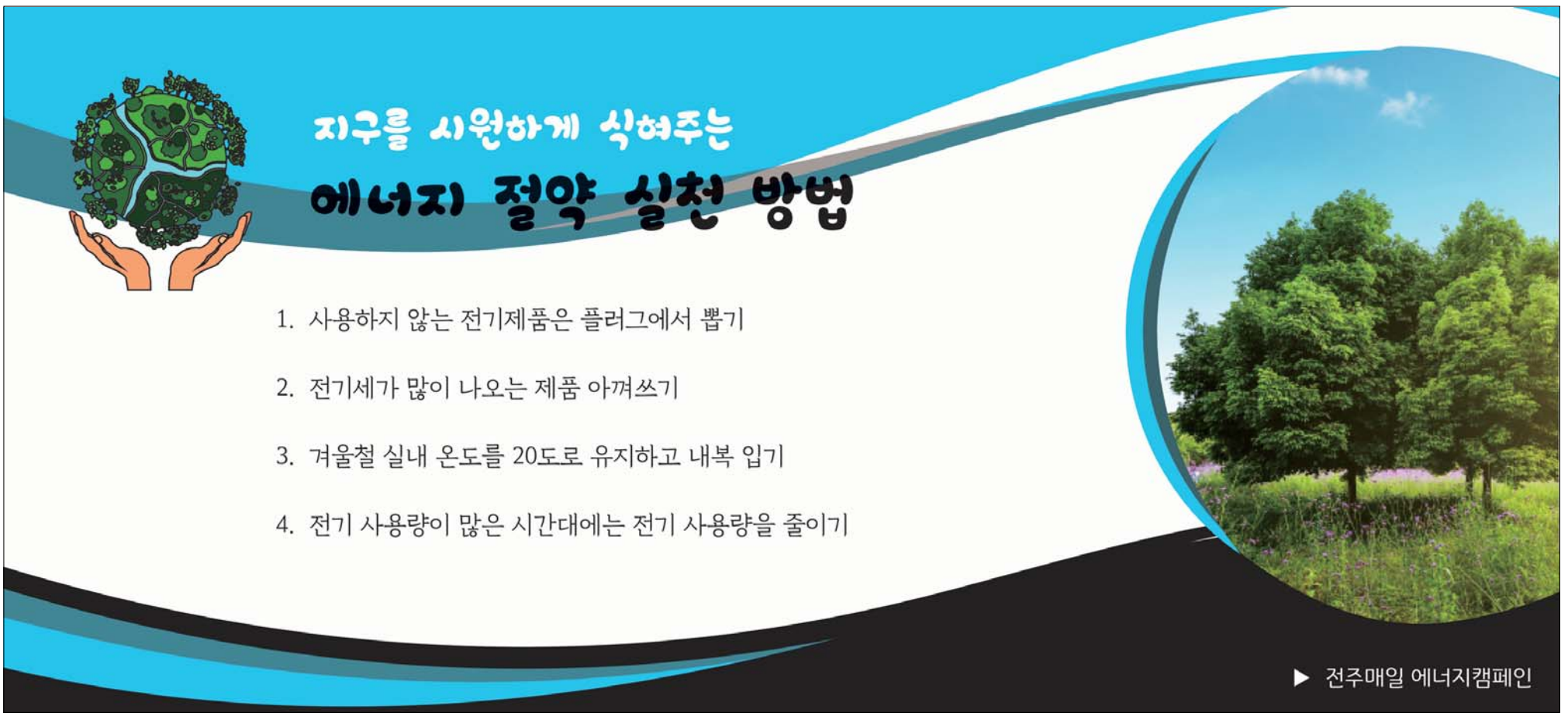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연구장비 활용 및 컨설팅 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접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공동연구장비 활용지원, 애로기술 컨설팅으로 총 2가지 항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은 전북TP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수요에 따라 연구 장비나 실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고가의 연구장비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애로기술 컨설팅을 통해 수혜기업이 직면한 기술적 문제를 도내 혁신인프라 기관과 연계로 해결하여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술적 진보를 촉진하여,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위 두 지원 뿐만 아니라 2025년도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전북TP 자체적으로 수요기업에게 신청 절차, 요구되는 기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통하여 기업이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내 에너지특화기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통해 지정되고 공고는 매년 10월~11월쯤 올라오니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